

【논문】

## 明代의 衛所軍官에서 清代의 八旗旗人으로\*

— 통기야(Tunggiya)~撫順 佟氏 일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 경 준\*\*

### ┆ 차 례 ┆

- I. 머리말
- II. 元末明初의 통기야~佟氏 일족
- III. 滿洲의 勃興과 撫順 佟氏
- IV. 八旗制적 신분질서 하의 撫順 佟氏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주선~만주인의 유력 씨족이었던 통기야 씨 일족을 대상으로 明代에서 淸初에 이르기까지의 동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일찍이 14세기까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통기야 씨는 漢姓을 佟氏로 하여 漢化된 만주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撫順 佟氏는 통기야 씨의 始祖라 일컬어지는 元末明初의 바후 퉁신이란 인물의 차남 다르간 투머투에서 分岐한 支派에 해당한다. 다르간 투머투는 元明交替라는 동란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明朝로 귀순하여 撫順에 정착하였는데, 이로부터 撫順 佟氏가 시작된다. 다르간 투머투가 明朝로부터 衛所의 軍官에 기용된 이래 일족의 성원들은 주로 군사지휘관으로서 활약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족의 일부는 변경지대를 왕래하며 상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16세기말 大淸이 발흥하자 통기야~撫順 佟氏는 새로운 선택에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서 撫順 佟氏는 일족의 지도자였던 佟養正과 佟養性의 주도 하에 明을 이탈하여 淸으로 투항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遼東 일대에서 축적해 왔던 지역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동국대학교 문화기술원 HK연구교수.

여 淸朝가 패업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淸의 지배층인 八旗의 旗人에 편입되는 데 성공한다. 이후 撫順 佟氏는 淸으로부터 수여받은 官職과 世職(=爵位)를 존립기반으로 하면서 가계별로 분기해 간다. 淸朝는 撫順 佟氏가 漢人 문화에 친화적이라는 점을 평가하여 이들로 하여금 투항 漢人의 관리를 맡게 하였다. 이와 함께 皇帝의 측근 기구인 侍衛나 內務府에 참여하게 하여 皇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포섭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撫順 佟氏는 淸代의 대표적인 權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다.

주제어: 통기야 씨, 撫順 佟氏, 衛所軍官, 遼東, 八旗, 旗人

## I. 머리말

유라시아 대륙 동북부에 위치하는 만추리아(Manchuria)<sup>1)</sup>는 역사적으로 주선(Jušen/女眞·女直)<sup>2)</sup>~만주(Manju/滿洲)로 대표되는 통구스 계열의 민족집단이 활동해 왔던 중심무대로 인근의 漢地(China Proper)나 韓半島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까닭에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sup>3)</sup> 14세기 후반 明朝가 이 지역에 遼東都指揮使司(=遼東都司)를 설치하자 주선인들 일부는 생존을 위하여 明의 領內로 들어와 出仕하거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며 生業을 도모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혈통적 연원을 불문하고 華와 夷가 雜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4)</sup> 더욱이 16세기 중엽 이후 세계 규모의 무역 활황에 따라 漢地 사회의 유통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漢人의 대규모 移住와 流入이 발생하여 만추리아 사회변동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sup>5)</sup> 16세기 말 주선~만주를 出自로 하는 누르하지

- 1) 본고에서는 한국학계에서 이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滿洲'라는 용어 대신 '만추리아'를 사용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임경준, 『淸朝의 北京遷都와 盛京地域』, 『동국사학』 68, 2020, 359쪽의 주1)을 참조.
- 2) 한국학계에서는 주로 '女眞'이라 칭해지지만, 여러 일차자료에 의해서 몽골어 'Jürčēn/Jürčid', 주선~만주어 'jušen'이라는 원어의 철자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따라 "주선"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 3) 만추리아와 인근 지역과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神田信夫, 『滿洲における國家の成立』, 護雅夫·神田信夫 編, 『北アジア(新版)』(世界各國史), 東京: 山川出版社, 1981; 河內良弘, 『契丹·女眞』, 三上次男·神田信夫 編,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民族の世界史 3), 東京: 山川出版社, 1989를 참조.
- 4) 明代의 遼東 통치에 대해서는 서인범,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淸史研究』 23, 2005, 100-109쪽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楊暘, 『明代遼東都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8; 남의현,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 荷見守義, 『明代遼東と朝鮮』, 東京: 汲古書院, 201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Nurhaci/努爾哈赤)가 건국한 大清國(Daicing Gurun)<sup>6)</sup>의 발흥 역시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배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누르하치를 수장으로 하는 소규모 지역국가에서 출발하여 이후 동부 유라시아의 패권국가로 발전한 滿洲~大清國의 내부구조에는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大清의 형성과정은 14세기 이후 만추리아라는 지역이 넓어 온 역사적 경위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었는가.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정권이 華夷雜居와 明清交替라는 시대적 조건에 어떻게 대응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포섭·수용하였는가 하는 거시적 문제와 관련된다. 반면 만추리아의 지역주민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회 격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저마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개인의 문제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더군다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明代 이래의 재래 주선~만주 유력 씨족의 연합으로서 大清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관점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sup>7)</sup> 따라서 大清의 흥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제도나 조직의 윤곽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처하던—더러는 협력하고 더러는 저항하던—다양한 在地 주민의 동향을 一族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미시적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sup>8)</sup>

본고의 검토대상인 撫順 佟氏 일족의 연대기는 16세기 이후 미증유의 대변동에 내던져진 만추리아 在地 주민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에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

5) 16세기 중엽 이후 유라시아 동부 일대의 정치·사회·경제변동을 流動化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岸本美緒의 성과를 들 수 있다. 岸本美緒,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世界歴史 13』, 岩波書店, 1998; 同, 『十八世紀の中國と世界』, 『風俗と時代観: 明清史論集1』, 2012, 東京: 研文出版, 2012(原載: 『七隅史學』 2, 2001 등 참조. 한편 한국학계에서 김선민이 ‘변경사’의 관점에서 만주지역을 재조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선민,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여진-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2013 등 참조.

6) 건국한 당초의 國號는 滿洲語로 ‘만주 구룬(Manju Gurun/滿洲國)’이었는데, 明朝나 朝鮮에 대해서는 ‘後金’이라는 漢字 國號를 사용하다가 1636(崇德元)년에 Daicing Gurun, 즉 大清國이란 國號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大清의 國號에 관해서는 神田信夫, 『滿洲(manju)國号考』,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 22-33쪽(原載: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72)이 상세하다. 다만 국호 개칭의 경위를 여기에서 專論할 필요는 없으므로 편의에 따라 ‘大清’이나 ‘滿洲’, ‘清’, ‘清朝’를 병용하겠다.

7) 三田村泰助, 『清朝前史の研究』, 京都: 同朋社出版, 1965; 杉山清彦,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등 참조.

8) 滿洲~清朝史가 아닌 中國明清史에서의 성과이기는 하나, 國家와 社會의 관계를 단순히 저항과 순응이라는 경직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국면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는, 근년 Michael Szonyi가 明代 東南沿岸 宗族의 사례를 일상정치(Everyday Politics)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Michael Szonyi, *The Art of Being Governed: Everyday Politics in Late Imperial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해 준다. 佟氏는 元末明初 이래 유력 주선~만주 氏族 중 하나인 퉁기야(Tunggiya) 씨의 漢姓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支波인 撫順 佟氏는 明代 이후 遼東 일대에 거주하면서 漢人 사회의 문화·관습 언어에 가까워진 이른바 ‘漢化’된 주선인을 대표하는 일족이었다.<sup>9)</sup> 大清에 귀순한 이후에는 일족 출신의 孝康皇太后에게 태어난 玄燁이 皇위에 올라 康熙帝가 되었고, 孝懿仁皇后와 懋惠皇貴妃와 같은 后妃를 잇따라 배출하여 大清皇室의 핵심 姻戚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만주리아 남부~요동지역에 연원하는 無順 佟氏 일족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취하였기에 明清 交替라는 波高를 극복하고 清代의 榮華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반대로 大清 입장에서는 無順 佟氏 일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아가 정권의 핵심 지배층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인가.

大清 정권 하 撫順 佟氏의 위치를 가늠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清代를 통하여 국가적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던 八旗制 하의 신분질서에서 이 일족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八旗란 누르하치에 의하여 창설된 軍·政 일치 조직으로서 鑲黃·正黃·正白·正紅·鑲白·鑲紅·正藍·鑲藍 8개의 軍단=旗(gūsa/固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軍단은 5개의 旗(甲喇/參領)로, 각 旗는 다시 5~10개의 牛車(niru/牛車, 漢譯은 佐領)로 편성되어 있었다. 牛車는 軍사·행정·경제의 기본단위로 기능하고 있던 까닭에 大清의 지배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국 이래의 古參 功臣이건 新參 귀순자이건 누구라도 반드시 특정 牛車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였다.<sup>10)</sup> 撫順佟氏와 같은 漢化 만주인들은 당초 다른 투항 漢人들과 함께 만주어로 ‘퍼 니칸(fe nikan, 舊漢人의 뜻)’으로 불리다가 1634년 이후에는 우전 초오하(ujen cooha/烏眞超哈, 重兵의 뜻)라 불리는 重火器部隊에 배속되었는데, 撫順 佟氏 출신 佟養性이 바로 이 부대의 지휘관에 기용되었던 인물이었다.<sup>11)</sup>

- 
- 9) 清代 滿洲人の 漢化(Sinicization) 문제와 관련해서는 何炳棣와 Evelyn S. Rawski 사이의 논쟁을 참조할 수 있다. Ping Ti Ho, “The Significance of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6-2, 1967; Evelyn S. Rawski,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1996.
- 10) 八旗制의 내부 구조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杉山清彦, 「中央ユーラシア國家としての大清帝國」,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의 개념도와 설명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 11) 우전 초오하-漢軍의 內實과 개칭 경위에 대해서는 浦廉一, 「漢軍(烏眞超哈)に就いて」, 『桑原隲藏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弘文堂, 1931; 細谷良夫, 「烏眞超哈(八旗漢軍)の固山(旗)」, 『松村潤先生古稀紀念清代史論集』, 東京: 汲古書院, 1994를 참조. 佟養性和 함께 우전 초오하-漢軍의 지휘관에 임명된 이는 마찬가지로 ‘漢化’ 주선인이었던 石廷柱였다. 神田信夫, 「清初の漢軍武將石廷柱について」,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原載: 『駿台史學』 66, 1986) 참조.

이처럼 통기야 씨의 한 支派인 撫順 佟氏 일족은 일찍부터 大清 정권에 참여하여 대대로 后妃를 배출하는 皇室의 姻戚인 동시에 漢人을 총괄하는 총책임자로서 이 시기의 전쟁에서 중요한 병장기로 각광을 받던 重火器의 운용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다른 만주인 家系와는 달리 학계에서 예외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통기야-佟氏의 世系와 연원에 대한 선구적 업적은 주로 일본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內藤湖南<sup>12)</sup>을 효시로 하여 和田清<sup>13)</sup>, 三田村泰助<sup>14)</sup>, 増井寛也<sup>15)</sup>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 한편 중국학계에서는 侯壽昌<sup>16)</sup>, 王革生<sup>17)</sup>, 王政堯<sup>18)</sup> 등이 주로 大清 政權 治下 일족 출신 유력자의 행적을 추적한 연구를 간행하였으며, 佟明寬·李德進<sup>19)</sup>과 楊海英<sup>20)</sup>은 宗族史의 시야에서 통기야-佟氏의 연원에 접근한 바 있다. 한편 구미권의 관심은 ‘漢化’ 문제에 쏠려 있는 편인데, 파멜라 크로스리(P. Crossley)<sup>21)</sup>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통기야-佟氏는 그간 특정 국가와 학계를 넘나 들며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 관직을 역임한 특정 인물의 개별사례에 지나치게 관심이 편중되어 있거나 宗族 宣揚을 목적으로 편찬된 연대기적 서술이 눈에 띄는 한편, 일부 연구자의 경우 ‘漢化’ 이론 자체에 과도하게 경도되어 연역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도 다분히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통기야-佟氏 일족 역시 다른 清代의 旗人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립기반을 八旗制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목하여 통기야-佟氏 일족을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의 한계와 공

- 
- 12) 內藤湖南, 「清朝姓氏考」, 『內藤湖南全集』 7, 東京: 筑摩書房, 1970(原載: 『藝文』 3-3-4, 1912); 同, 「奴兒干永寧寺二碑補考」, 『內藤湖南全集』 7, 東京: 筑摩書房, 1970(原載: 『讀史叢錄』, 1929).
- 13) 和田清, 「明初の滿洲經略」上·下, 『東亞史研究(滿洲篇)』, 東京: 東洋文庫, 1955(原載: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4-15, 1934).
- 14) 三田村泰助, 「清朝の開國傳説とその世系」, 『清朝前史の研究』, 京都: 同朋社出版, 1965(原載: 『立命館大學五十周年記念論文集』, 1951); 同, 「明末清初の滿洲氏族とその源流」, 『清朝前史の研究』, 京都: 同朋社出版, 1965(原載: 『東洋史研究』 19-2, 1960).
- 15) 増井寛也, 「滿族入關前のムクンについて」, 『八旗滿洲氏族通譜』を中心に, 『立命館文學』 528, 1993.
- 16) 侯壽昌, 「康熙母系考」, 『歷史檔案』 1982-4, 1982; 同, 「淺論佟養性」, 『歷史檔案』 1986-2, 1986.
- 17) 王革生, 「清朝開國功臣佟養性」, 『北方論叢』 1985-6, 1985.
- 18) 王政堯, 「佟養性和“佟半朝”」, 『人物』 1989-2, 1989.
- 19) 佟明寬·李德進 編, 『滿族佟氏史略』, 撫順: 撫順市新聞出版社, 1999.
- 20) 楊海英, 「明清之際遼東佟氏先世考辨」, 『民族研究』 2019-6, 2019.
- 21) P.Crossley, “The Tong in Two Worlds: Cultural Identities in Liaodong and Nurgan during the 13th-17th centuries”, *Ch'ing-shih wen-t'i* 4-9, 1983. 이밖에 이블린 S. 로스키, 구범진 옮김,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182-183쪽도 참조.

백을 극복하기 위하여 明代에서 清初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撫順 佟氏 일족의 동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世職(Hergen)으로 대표되는 八旗制 하의 신분 질서에도 주의하면서 大清政權을 구성하는 유력 씨족이자 皇室의 姻戚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II. 元末明初の 통기야~佟氏 일족

清代 旗人의 계보를 집대성한 『通譜』의 卷19~20에는 바후 텍신(Bahū Teksin/巴虎特克慎)<sup>22)</sup>을 始祖로 하여 마차(Maca/馬察)<sup>23)</sup>, 야르구(Yargū/雅爾湖)<sup>24)</sup>, 기야하(Giyaha/加哈), 통기야(Tunggiya/佟佳) 등의 支派로 구성된 통기야 씨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바후 텍신 슬하의 자식 7명은 저마다 分家하여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撫順 佟氏는 이 중에서 차남 다르간 투머투(Dargan Tumetu/達爾漢圖墨圖)에서 분기한 支派에 해당한다.

1387(洪武 20)년 遼東都司 관할 하의 衛所로서 開原에 설치된 三萬衛에는 다수의 주선인 출신 軍官이 소속되어 있었다. 衛所란 明朝의 창업자 洪武帝에 의해 창설되어 전국적으로 설치된 군사조직으로 그 지휘관은 指揮使라 하며 상급기관인 都指揮使司의 통할을 받았다.<sup>25)</sup> 衛所에 소속된 軍官의 人事·戶籍 기록을 衛選簿라 하는데, 三萬衛의 경우에도 『三萬衛選簿』가 현전하고 있다.<sup>26)</sup> 여기에서 三萬衛 소속 軍官 중

22) 만주어 인명은 기본적으로 『通譜』의 滿文本(東京大學總合圖書館 소장본)과 『初集』의 만문본(天理圖書館 소장본)에 의거하면서 Giovanni Stary의 滿文本 『通譜』 색인을 참조하였다. Giovanni Stary, *A Dictionary of Manchu Names: A Name Index to the Manchu Version of the "Complete Genealogies of the Manchu Clans and Families of the Eight Banner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0. 明初의 주선인 인명은 몽골어에서 차용한 경우가 많으나, 후대의 清代史料에는 이를 만주어 철자법에 의거하여 표기하고 있어 원 발음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일일이 대조 검토할 여유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인명의 경우 清代史料의 표기법에 따라 기재하겠다.

23) 누르차치 창업 초기의 정권 요직인 자르구치(jargūci/斷事官)로서 활약한 바두리(Baduri/巴篤禮)의 출신 가계이다. 『通譜』 卷19, 「巴篤理札爾固齊」傳; 『初集』 卷155, 「巴篤禮」傳 참조.

24) 國初의 집정기구인 五大臣의 반열에 오른 다르한 히야(Darhan Hiya) 후르간(Hūrgan)의 출신 가계이다. 『通譜』 卷19, 「達爾漢侍衛廬爾漢」傳; 『初集』 卷152, 「達爾漢轄」傳 참조.

25) 明代의 衛所制度에 관해서는 川越泰博, 『明代中國의 軍制と政治』, 東京: 國書刊行會, 2001; 于志嘉, 『明代軍戶世襲制度』, 臺北: 學生書局, 1987 등을 참조.

26) 현전하는 102冊의 衛選簿는 中國第一歷史檔案館과 遼寧省檔案館이 공동으로 편찬·발간한 『中國明朝檔案總匯』(전100권)의 49권에서 74권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遼寧省檔案館編, 『中國明朝檔案總匯』,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여기에서 『三萬衛選簿』는 제55권에 수록되어

통기야~佟氏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사료1> 佟國臣은 女真人이다. 始祖 滿只는 洪武 16년에 歸附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 高祖 答刺哈가 堞集에 의해 充軍되었다. 永樂 元年 招諭에 응하여 小旗에 승격되었다. 永樂 2년에 招諭에 응하였고, 永樂 4년에 總旗에 승격되었다. 黑勒谷에서 招諭에 응하여 都指揮僉事에 제수되었다. 宣德 元年 奴兒干에서 公務를 수행하여 都指揮同知에 승진하였다. 宣德 6년에 사망하였다.<sup>27)</sup>

여기에서 “高祖”로 등장하는 “答刺哈”은 몽골어 Darqan을 漢字로 音寫한 것이므로 『通譜』의 다르간 투머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答刺哈”의 부친으로 등장하는 ‘滿只’는 『通譜』의 바후 톡신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滿只’는 몽골제국 시기에 南宋 지배하의 지역과 주민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manji<manzi(蠻子)에서 유래했으리라 추정된다.<sup>28)</sup> 아마도 ‘滿只’는 통칭이었고 실제 이름은 바후 톡신이 아니었을까 한다.<sup>29)</sup> 다르간 투머투의 경우도 家譜 자료에는 “公의 諱는 達禮로 우리 佟氏의 始祖이다. …… 公은 巴虎特克慎의 次子로 初名은 達爾漢圖墨圖이다”<sup>30)</sup>라 기재되어 있어 ‘達禮’라는 통칭으로 불렸으리라 추측된다.<sup>31)</sup>

明代的 衛所軍은 예외 없이 軍戶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방법은 크게 1) 從征: 朱元璋 거병 시의 군대, 2) 歸附: 明에 투항한 경우, 3) 謫發: 범죄를 저질러 군에 충당된 경우, 4) 堞集: 民間에서 징집하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sup>32)</sup> 이러한 明代 軍制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사료1>을 살펴보면, 먼저 통기야~佟氏의

있다. 『三萬衛選簿』에 관해서는 川越泰博, 「三萬衛選簿の研究」, 『中國典籍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78(原載: 『史苑』 38-1-2, 1977)에서 日本 東洋文庫 소장본 『三萬衛選簿』을 대상으로 하여 서지적 검토와 함께 간략한 내용 소개가 이뤄진 바 있다.

- 27) 『三萬衛選簿』, 「佟國臣」條: 佟國臣, 女真人. 始祖滿只, 洪武十六年歸附. 故, 高祖答刺哈, 堞集充軍. 永樂元年, 招諭陞小旗. 二年, 招諭, 四年, 陞總旗, 黑勒谷招諭, 除都指揮僉事. 宣德元年, 奴兒干公幹, 陞都指揮同知. 六年, 故.
- 28) 김호동에 따르면 몽골제국시대의 非漢人들에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관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金과 南宋의 지배를 받던 영역을 각기 契丹이(Khitai)와 만지(Manji)라는 별도의 두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다.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2006, 229-232쪽.
- 29) 三田村泰助는 江南의 漢人을 가리키던 manji를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漢化의 전조현상으로 보고 있다. 三田村泰助, 「清朝の開國傳説とその世系」, 13-14쪽.
- 30) 『佟氏宗譜』(民國 7년 續修), 「鎮國將軍公」條: 公諱達禮, 爲我佟氏始祖……公爲巴虎特克慎次子, 初名達爾漢圖墨圖.
- 31) 佟世忠, 「先高曾祖三行略」, 『八旗文經』 卷50에 “始祖諱達禮, 以邊功加秩指揮同知”라 하여 마찬가지로 다르간 투머투가 “達禮”로 기록되어 있다.
- 32) 川越泰博, 『明代中國の軍制と政治』, 東京: 國書刊行會, 2001, 52쪽; 『明史』 卷90, 兵志 2, 衛所條 참조.

始祖에 해당하는 바후 톡신=滿只是 주선인 출신으로서 三萬衛가 설치되기 4년 전인 1383(洪武 16)년이라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明에 '歸附'하여 元明交替의 동란기를 돌파하려 했던 듯하다. 바후 톡신=滿只의 행적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차남인 다르간 투머투=達禮의 경우 明의 '塚集'에 응하여 充軍되었다 하므로 이때에 비로소 軍戶에 편입되었고 이후 衛所의 軍官으로 出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르간 투머투=達禮는 明의 永樂帝가 만추리아 동북부의 아무르 강(黑龍江) 일대에 진출하여 설치한 누르건 都指揮使司(=누르건 都司)<sup>33)</sup>에도 참여하였다.<sup>34)</sup> 이와 관련하여 <사료1>의 『三萬衛選簿』는 단지 “奴兒干에서 公務를 수행하여 都指揮同知에 승진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행적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누르건 都司에 병설된 불교사원 永寧寺에는 현재 사원 건립과 관련된 碑文 자료가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奴兒干永寧寺碑記」로 통칭되는 이 碑文은 永樂 11년과 宣德 8년에 만들어진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永樂碑文에는 “都指揮同知康旺”과 “都指揮僉事王肇舟, 佟答刺哈”, 宣德碑文에는 “都指揮康福, 王肇舟, 佟勝”이라는 소속 軍官의 성명이 확인된다.<sup>35)</sup>

「奴兒干永寧寺碑記」의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清代 사료 『通譜』와 『初集』에 수록된 「佟養正<sup>36)</sup>」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전하고 있다.

**<사료2-1>** 그 선조인 達爾漢圖墨圖는 明代에 東旺·王肇州·索勝格 등과 함께 近邊을 왕래하며 貿易하다가 마침내 開原에 寓居하였고 이어서 撫順으로 옮겨 살았다.<sup>37)</sup>

33) '奴兒干'은 일반적으로 '누르간' 혹은 '누르칸'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長田夏樹가 1413년의 「勅修奴兒干永寧寺記」의 몽골어와 주선어를 對譯한 연구에 따르면, 漢字 '奴兒干'은 몽골어 'nurgai'과 주선어 'nu-ru-geu'에 각각 대응한다고 한다. 따라서 몽골어와 주선어 轉寫를 참조한다면, '누르간'이 더 정확한 발음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長田夏樹, 「奴兒干永寧寺碑蒙古女真文釋二稿」, 『長田夏樹論述集』下,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2001, 188-202쪽 참조.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누르건 都司'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34) 永樂帝의 아무르 강 진출은 1404(永樂 2)년 이 일대의 주선인 頭目들이 來朝한 데서 비롯되었다. 永樂帝는 누르건 衛를 설치하고 귀순한 주선 頭目을 指揮同知로 삼고 誥命과 印信을 지급하였다. 『明太宗實錄』卷28, 永樂 2(1404)년 2월 癸酉條: 忽刺溫等處女直野人頭目把刺答哈來朝, 置奴兒干衛, 以把刺答哈刺孫等四人, 為指揮同知, 古驢等為千戶所鎮撫, 賜誥印·冠帶·襲衣, 及鈔幣有差. 明初의 누르건 都司 경영에 관해서는 和田清, 「明初의 滿洲經略」, 345-373쪽 참조.

35) 「奴兒干永寧寺碑記」의 永樂碑文과 宣德碑文은 內藤湖南, 「奴兒干永寧寺二碑補考」, 583-586쪽에 錄문이 게재되어 있다.

36) 본래는 '佟養眞'이지만, 雍正帝의 이름 胤禛을 避諱하기 위하여 清代 史書에는 '佟養正'으로 표기된다.

37) 『通譜』卷20, 「佟養正」傳: 其祖達爾漢圖墨圖, 於明時, 同東旺·王肇州·索勝格等, 往來近邊貿易. 遂寓居於開原, 繼遷撫順.

<사료2-2> 高祖 達爾哈赤는 明의 遼東邊境을 유랑하다가 마침내 開原에 寓居하였는데, 이윽고 撫順으로 옮겨 살았다.<sup>38)</sup>

그러면 <사료2>의 두 자료를 「奴兒干永寧寺碑記」의 내용과 대조해 보도록 하자. 먼저 永樂碑文과 宣德碑文에 모두 등장하는 “王肇舟”는 발음의 유사성으로 보아 <사료2-1>의 “王肇州”와 동일인물로 단정해도 문제가 없다. 반면 永樂碑文에 등장하는 “康旺”의 경우 <사료2-1>에는 “東旺”이라 표기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明太宗實錄』 卷91, 永樂 7(1409)년 閏4월 己酉條에 누르건 都司를 설치하면서 “東寧衛 指揮 康旺을 都指揮同知로 삼고 千戶 王肇舟 등을 都指揮僉事로 삼아 그 무리를 統屬하고 海靑 따위를 歲貢으로 바치게 하였다”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sup>39)</sup> 여기에 등장하는 “東寧衛 指揮 康旺”은 말할 것도 없이 永樂碑文의 “康旺”과 동일인물이므로 <사료2-1>의 “東旺”은 후대의 誤記라 할 수 있다.<sup>40)</sup> 이처럼 시기와 성격을 달리 하는 두 자료의 등장인물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永樂碑文의 “修答刺哈”는 <사료2-1>의 다르간 투머투=達禮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한편 <사료2-2>에는 修養正의 高祖로 “達爾哈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료2-1>과 대조하여 파악하면, 이는 다르간 투머투=達禮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료는 공통적으로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明의 邊境을 오가면서 생활하다가 開原을 거쳐 撫順에 정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邊境을 출입한 목적은 <사료2-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貿易의 일환이었으리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파편적인 사료들의 정보를 시계열에 따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83년에 부친 바후 톡신=滿只를 따라 明에 귀순한 다르간 투머투=達禮는 洪武年間에는 주로 開原과 撫順 일대에 거주하며 康旺·王肇舟와 함께 邊境을 오가며 상업 활동에 종사하며 생업을 꾸리고 있었다. 그리고 永樂帝가 즉위하자 이들은 招撫에 응하여 각각 三萬衛와 東寧衛의 衛所軍官에 임용되었고, 이후 明의 아무르 강 진출에 從軍하여 누르건 都司 경영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sup>41)</sup>

38) 『初集』 卷143, 「修養正」傳: 高祖 達爾哈赤, 客遊明遼東邊境, 遂寓居開原, 稍遷撫順.

39) 『明太宗實錄』 卷91, 永樂 7(1409)년 閏4월 己酉條: 設奴兒干都指揮使司. 初, 頭目忽刺冬奴等來朝, 已立衛, 至是, 復奏其地衝要, 宜令元帥府宜立元帥府, 故置都司. 以東寧衛指揮康旺, 爲都指揮同知, 千戶王肇舟等, 爲都指揮僉事, 統屬其衆, 歲貢海靑等物, 仍設狗站遞送.

40) 여기에서 康旺과 王肇舟가 원래 東寧衛 소속 軍官이었음을 알 수 있다. 明代의 東寧衛에 관해서는 서인범,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를 참조.

41) <사료2-1>과 <사료2-2> 모두 衛所軍官으로의 임관 정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清代 사료인

즉 다르간 투머투=達禮·康旺·王肇舟가 나란히 「奴兒干永寧寺碑記」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永樂帝의 즉위와 招撫에 의한 衛所軍官 임용에 따른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르긴 都司에 참여한 시기는 언제일까. 康旺과 王肇舟가 누르긴 都司에 임관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409(永樂 7)년이라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明實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사는 1425(洪熙 元)년 12월이므로 시간상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sup>42)</sup> 본래 遼東都司 휘하에서 행동을 함께하였고, 「奴兒干永寧寺碑記」에도 동시에 이름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르간 투머투=達禮·康旺·王肇舟의 누르긴 都司 부임은 아마도 거의 동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실제로 <사료1>의 『三萬衛選簿』에 따르면, 다르간 투머투=達禮는 1406(永樂 4)년 이후에 都指揮僉事に 제수되었다가 1426(宣德 元)년에 누르긴 都司에서 公務에 종사한 공을 인정받아 都指揮同知에 승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누르긴 都司에 부임한 시기의 상한선은 1406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하한선은 공적을 인정받은 1426년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 20년 중의 어느 시기에 三萬衛 소속 軍官이었던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무언가의 계기로 누르긴 都司에 임관하였고 그 결과 永樂 11년의 「奴兒干永寧寺碑記」에 都指揮僉事 “佟答刺哈”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宣德碑文에는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아닌 “佟勝”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明宣宗實錄』 卷80, 宣德 6(1431)년 6월 癸丑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사료3> 都指揮同知 佟答刺哈의 조카[姪] 佟勝에게 명하여 都指揮僉事を 承襲하게 하였다. 佟答刺哈는 永樂年間에 邊境에서 勞勤에 힘쓴 바가 많아 奴兒干都司의 都指揮僉事に 올랐다. 뒤에 都指揮同知에 올라 三萬衛 관리 하에 百戶의 食俸을 지급받다가 줄하였다. 佟勝이 襲職을 고하자 行在의 兵部에서 말하기를 “都指揮는 流官이므로 襲職할 수 없다”고 하였다. 皇上이 말하기를 “遠人을 懷撫하는 데는 常例에 구애받아서 안 된다”고 하여 특별히 명을 내려 都指揮僉事を 襲職시키고 그대로 百戶의 食俸을 지급하였다.<sup>43)</sup>

『通譜』에서 明代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수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주선~만주인 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42) 『明宣宗實錄』 卷12, 洪熙 元(1425)년 12월 乙亥條 : 陝西莊浪衛土官都指揮僉事魯失加·奴兒干都司都指揮僉事佟答刺哈·遼東海州衛指揮僉事阿哈木等來朝貢馬.

이에 따르면 佟答刺哈는 1431(宣德 6)년에 사망했으니 <사료1>의 다르간 투머투=達禮에 관한 기록과 일치한다. 즉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1431년에 사망함에 따라 그 조카(姪)인 佟勝이 그의 職位를 承襲하여 2년 뒤인 1433(宣德 8)년에 「奴兒干永寧寺碑記」가 세워질 때는 佟勝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 것이다.<sup>44)</sup> 永樂碑文에 佟答刺哈와 함께 등장했던 康旺 역시 병을 이유로 물러난 뒤에 자식인 康福이 襲職하여 宣德碑文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이와 동일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sup>45)</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뒤에 都指揮同知로 승진했지만, 三萬衛에서 관리하여 百戶의 食俸을 지급하다가 졸하였다”라는 구절이다. 食俸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원문에 “於三萬衛帶支百戶俸而卒”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帶俸支給’, 즉 누르건 都司로 옮겨 갔어도 원래의 근무지였던 三萬衛 관할 하에서 그대로 食俸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6)</sup> 본래 누르건 都司는 遼東都司와 달리 실질적인 직접 통치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고 1449(正統 14)년 土木保의 變 이후 明朝의 대외정책이 수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7)</sup>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부임한 후에도 여전히 三萬衛에서 食俸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누르건 都司가 軍政機關으로서 자체적인 재정 체계가 불완전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明의 누르건 都司 정책과는 무관하게 다르간 투머투=達禮의 후손은 그의 사후에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佟勝의 뒤를 이어 襲職한 佟昱이 “三萬衛帶俸都指揮同知”로 활동하다가 天順 8년 正月에 三萬衛의 指揮使로 강등

43) 『明宣宗實錄』 卷80, 宣德 6(1431)년 6월 癸丑條: 命都指揮同知佟答刺哈姪勝, 襲爲都指揮僉事. 佟答刺哈, 永樂中, 在邊多效勞動, 陞奴兒干都司都指揮僉事. 後, 陞都指揮同知, 於三萬衛帶支百戶俸而卒. 勝告襲, 行在兵部言, 都指揮流官, 不應襲. 上曰, 懷撫遠人, 勿拘常例. 特命襲都指揮僉事, 仍食百戶俸.

44) 『三萬衛選簿』에 따르면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사망했을 당시 아들인 佟昱이 아직 연소하여 그 대신에 “曾堂伯祖” 佟勝이 借職하였다고 한다. 『三萬衛選簿』, 「佟國臣」條: 曾祖佟昱年少, 曾堂伯祖佟勝借職. 楊海英은 『三萬衛選簿』와 다른 家譜 자료를 활용하여 佟昱과 佟勝의 관계를 ‘堂兄弟’로 보고 있다. 同, 『明清之際遼東佟氏先世考辨』, 100쪽. 한편 借職이란 본래 嫡長男이나 嫡長孫에게 세습해야 할 것을 당사자가 年少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次男이나 庶子에게 세습하는 것을 가리킨다. 借職에 대해서는 川越泰博, 『明代中國의 軍制と政治』, 273-352쪽을 참조.

45) 『明宣宗實錄』 卷84, 宣德 6(1431)년 10월 乙未條: 命奴兒干都司都指揮使康旺致仕, 以其子福代爲本司都指揮同知. 旺, 本韃靼人, 洪武間, 以父蔭爲三萬衛百千戶. 自永樂以來, 頻奉使頻奉使奴兒干之地, 累陞至都指揮使. 至是, 復命往奴兒干, 設都司. 旺, 辭疾乞以福代, 故有是命. 和田清, 『明初の滿洲經略』, 370-371쪽을 참조.

46) 明代의 ‘帶俸’에 관해서는 程彩萍, 『明代帶俸武官初探』, 『江蘇社會科學』, 2013-2, 2013을 참조.

47) 明朝의 누르건 都司 정책에 관해서는 楊賜 編,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 中州: 中州書畫社, 1982를 참조.

되었다는 기사<sup>48)</sup>가 있다. 여전히 三萬衛의 ‘帶俸軍官’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佟昱은 다르간 투머투=達禮와 佟勝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누르긴 都司에서 근무하면서 食俸은 三萬衛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후 다르간 투머투=達禮 일족이 ‘帶俸軍官’으로서 누르긴 都司에 근무한 기사는 『明憲宗實錄』 卷162, 成化 13(1477)년 2월 乙亥條에 “奴兒干的 都指揮僉事 佟昱의 자식 佟鎮을 襲職시켜 指揮使로 삼고 百戶의 食俸을 優給토록 하라고 명하였다”<sup>49)</sup>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에는 원래의 근무처인 三萬衛의 軍官으로 복귀하여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통기야~佟氏는 元明交替의 격변 속에서 시조에 해당하는 바후 忒新=滿只가 明으로의 歸附를 재빨리 선택함으로써 遼東都司 휘하의 주민으로서 재출발하게 된다. 바후 忒新=滿只가 세상을 뜬 뒤에는 次男인 다르간 투머투=達禮가 開原과 撫順 일대에서 국경지대를 오가며 상업활동에 종사하다가 明의 招撫에 응하여 三萬衛의 衛所軍官으로 임용되었는데, 이후 永樂帝의 만추리아 진출에 따라 누르긴 都司 경영에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다만 누르긴 都司로의 참여는 ‘帶俸軍官’의 자격으로 이루어졌던 까닭에 지역적 기반은 여전히 三萬衛에 둔 채로 遼東 일대에서 세력을 쌓아 나갔다고 할 수 있다.

### III. 滿洲의 勃興과 撫順 佟氏

明初에 遼東都司 관할 하의 衛所軍官으로서 일단 재출발에 성공한 다르간 투머투와 그 일족은 이후 지역적 기반인 開原과 撫順 일대에서 어떻게 세력을 유지 혹은 확대해 나갔을까. 이에 대한 검토는 주선인 통기야 씨가 어떻게 漢인 사회에 접근하여 華와 夷의 경계인적 존재인 撫順 佟氏로 전환해 갔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는 明末清初라는 격동기에 撫順 佟氏 일족의 지도자적인 중심 인물이었던 佟養正과 佟養性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佟氏家譜』에 의하

48) 『三萬衛選簿』, 「佟昱」條: 天順八年正月, 佟昱, 原係三萬衛帶俸都指揮同知, 降本衛指揮使.

49) 『明憲宗實錄』 卷162, 成化 13(1477)년 2월 乙亥條: 命奴兒干都指揮僉事佟昱子鎮, 襲為指揮使支百戶俸優給. 優給이란 衛所軍官이 물러났는데, 그 뒤를 이은 襲職者가 연소할 경우에 실무를 면제하지만 食俸은 그대로 지급하는 우대 조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襲職者를 가리켜 優給舍人이라 한다. 川越泰博, 『明代中國의 軍制と政治』, 353-431쪽.

면, 둘은 모두 다르간 투머투의 5세손인 佟惠의 손자뻘이며 서로 사촌지간에 해당한다.<sup>50)</sup>

먼저 佟養性에 대하여 살펴보자. 清代의 政書인 『初集』과 『續集』에 각각 入傳되어 있는 「佟養性」傳에는 佟養性의 내력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사료4-1> 佟養性은 漢軍正藍旗人이다. 대대로 撫順所에 거주하면서 商販을 生業으로 삼아 재물로써 한 지방을 석권하였다.<sup>51)</sup>

<사료4-2> 佟養性은 遼東人이다. 先世는 滿洲人으로 佟佳 지방에 거주하며 그 땅을 이름으로 삼았다. 상업을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撫順으로 옮겨 살았다.<sup>52)</sup>

佟養性은 다르간 투머투의 7세손으로 16세기말 大清이 興起할 때에 일족을 거느리고 누르하치 밑으로 귀순하여 清代에 撫順 佟氏가 번영하는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러한 佟養性에 관하여 <사료4>의 두 사료는 공통적으로 그 선조가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撫順에 거주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료2-1>의 “近邊을 왕래하며 貿易하였다”는 구절과도 대응한다. 즉 다르간 투머투 일파는 三萬衛의 衛所軍官에 임명된 뒤에도 종래의 생업수단이었던 상업에 의한 치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다르간 투머투를 중시조로 하는 佟氏 일족은 撫順에 정착한 이후 대대로 三萬衛의 衛所軍官職을 세습하여 明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상업 활동을 통한 경제적 치부에도 상당한 성공을 거둔 상태에서 16세기말 大清의 興起에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明代의 撫順 佟氏는 出仕와 상업이라는 두 가지 생업 수단을 병행함으로써 존속하고 있었다.<sup>53)</sup> 이렇게 본다면 撫順 佟氏의 衛所軍官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商人으로서의 측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실제 大清에 귀순한 撫順 佟氏 구성원에 관한 사료를 살펴보면, 商人으로서의 활동상이나 상업적 성공과 관련된 기록이 빈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일족 전체의 투항을 주도했던 佟養性 자신은 “당초 撫順城에서 장사하는 사람”<sup>54)</sup>이었다고 하며, 동일

50) 佟明寬·李德進 編, 『滿族佟氏史略』, 134-204쪽에 수록된 가계 정보를 참조.

51) 『初集』 卷182, 「佟養性」傳: 佟養性, 漢軍正藍旗人. 世居撫順所, 商販爲業, 以贊雄一方.

52) 『續集』 卷206, 「佟養性」傳: 佟養性, 遼東人. 先世爲滿洲, 居佟佳, 以地爲氏. 因業商遷撫順.

53) 明에 出仕한 사례로는 廣西總兵官의 자리에 오른 佟養政과 그의 아들로 進士에 급제한 佟卜年을 들 수 있다. Crossley, Pamela K, “The Tong in Two Worlds: Cultural Identities in Liaodong and Nurgan during the 13th-17th centuries”, 24-27쪽.

하게 養을 輩行字로 쓰는 修養澤은 “본래 撫順所의 상인이었다”<sup>55)</sup>고 한다. 마찬가지로 일족 성원인 修遜의 경우에는 讀書에 뜻을 두면서도 “家資巨萬”<sup>56)</sup>이라 칭해질 정도로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다. 撫順 修氏 일족을 出仕者와 商人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면, 大清으로의 투항에 앞장 선 세력은 修養性과 같은 상업에 종사하던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撫順 修氏 일족이 종사한 또 하나의 家業이라 할 수 있는 상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사료는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撫順 修氏의 근거지가 開原과 撫順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明代에 이 지역에서 개최되곤 하였던 馬市와의 연관성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주지하듯이 1406(永樂 4)년 遼東 일대에 馬市가 최초로 개설되는데, 이는 그 전년인 1405(永樂 3)년에 몽골계의 우랑하이이 來朝하여 말을 貢物로 바치는 대가로 廣寧과 開原에 互市場의 설치를 주청한 결과였다. 馬市가 개설된 지역은 접경지역인 廣寧과 開原 부근으로 廣寧 馬市가 주로 우랑하이의 전용시장이었다면 開原 馬市의 경우 주선인에게도 거래가 일부 개방되어 있었다. 다만 초기에는 馬市라는 명칭에 따라 거래 품목도 말에 한정되어 있었고 참여인원도 제한되어 있던 까닭에 상업적 영향력은 그렇게까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점차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말 이외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만추리아 일대에서 채집·생산되던 貂皮, 眞珠, 人參과 같은 특산품이 인기를 얻었다. 이에 따라 우랑하이이 전용으로 이용하던 廣寧 馬市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폐쇄와 재개를 되풀이하게 된 반면, 開原 馬市는 1439(正統 4)년 開原 南關에 추가로 互市場이 설치되는 등 거래의 중심축이 우랑하이이에서 주선으로 옮겨가게 된다. 특히 開原 南關은 본래 주선인 상인이 사적으로 거래하던 장소였는데, 明朝에 의해서 정식 互市場으로 공인받은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주선인 상인이 거래하는 교역품이 明朝 내부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464(天順 7)년에는 建州女直을 대상으로 하는 互市場이 撫順에 추가로 개설되었고, 이에 따라 遼東 일대에 개설된 互市場은 사실상 주선인이 장악한 시장으로 변화하게 된다.<sup>57)</sup>

54) 『滿文原檔』, 「藏字檔」(제5책, 246쪽: 『滿文老檔』太宗 1, 324쪽).

55) 『初集』卷23, 「修圖占」傳: 修圖占, 漢軍正藍旗人. 父養澤, 本明撫順所商人. 『續集』卷229, 同傳에도 동일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56) 修世忠, 「先高曾祖三世行略」, 『八旗文經』卷50: 諱遜……公生而類異, 讀書明性理, 家資巨萬.

아마도 다르간 투머투는 開原에 개설된 馬市의 판로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일족이 開原에서 撫順으로 옮겨간 것도 이후 撫順에 추가적으로 互市場이 개설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더욱이 撫順 馬市에는 누르하치 일족도 교역을 위해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撫順 佟氏가 이를 통하여 관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료를 확인해 보자.

<사료5-1> 天命初年 [佟養性의] 太祖高皇帝(=누르하치)의 功德이 날로 융성해지는데 보고 몰래 투항할 것을 타진하였다가 明에게 발각되어 獄에 수감되었다. 이윽고 獄에서 탈출하여 來歸하니 太祖가 기뻐하며 宗女를 내려 사위로 삼아 施吾禮額駙라 호칭하고 二等副將의 世職에 제수하였다.<sup>58)</sup>

<사료5-2> 天命 4년 大兵이 明을 정벌하여 撫順城을 함락시켰다. 佟養正이 동생 佟養性 및 일족과 함께 來歸하였다. 太祖高皇帝(=누르하치)는 佟養正이 본래 滿洲에 속했음을 생각하여 族人の 태반을 佛阿拉에 거주하게 하고 3년간 恩養하면서 差役을 부과하지 않았다.<sup>59)</sup>

<사료5-1>에 따르면, 佟養性은 누르하치가 明朝와의 전쟁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滿洲와 내통하여 귀순을 획책하다가 발각되어 수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누르하치는 1583년 25세의 나이로 자립한 이래 1588년에는 建州女直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여 1616년에 스스로 한(Han) 위에 즉위 한 바 있는데, 佟養性은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佟養性은 결국 탈옥에 성공하여 淸에 귀순하였고, 그 결과 누르하치의 宗女와 혼인하여 시 우리 어푸(Si Uli Efu/施吾禮額駙)라는 칭호가 賜與되었다. 이때 佟養性과 혼인한 宗女는 누르하치의 庶子인 아바이(Abai)의 딸이었다.<sup>60)</sup>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누르하치가 1618(天命 3)년 明朝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발령하고 곧바로 군대를 지휘하여 撫順을 공략하였을 때 지역의 富豪 佟氏

57) 明代の 遼東馬市에 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江嶋壽雄, 『明代清初の女直史研究』, 福岡: 中國書店, 1999, 217-405쪽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58) 『初集』卷182, 「佟養性」傳: 天命初年, 見太祖高皇帝功德日盛, 密輸誠款, 爲明所覺, 收置於獄. 尋自獄逃出來歸, 太祖嘉之, 賜宗女爲壻, 號曰施吾禮額駙, 授二等副將世職.

59) 『通譜』卷20, 「佟養正」傳: 天命四年, 大兵征明, 克撫順城, 養正同弟養性及族衆來歸. 太祖高皇帝, 念養正原係滿洲, 將族人大半, 令居於佛阿拉, 恩養三年, 不加差役.

60) 綿貫哲郎, 「清初の舊漢人と八旗漢軍」, 『史叢』67, 2002, 37쪽; 『通譜』卷20, 「佟養性」傳: 初自撫順來歸, 太祖高皇帝嘉之, 授三等男, 以孫女降焉.

일족이 修養性만이 아니라 그 사촌인 修養正도 주도하여 귀순했다는 <사료5-2>의 기술이다. 撫順 함락 당시 일족을 대표하는 修養正과 修養性이 함께 누르하치에게 귀순을 주도한 셈이므로 사실상 撫順 佟氏라는 일족 전체가 滿洲로 투항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누르하치는 여세를 몰아 1619(天命 4)년에 開原과 鐵嶺 등을 공략하고, 1621(天命 6)년에는 瀋陽·遼陽을 차례대로 함락시킨다. 그런데 修養性和 修養正은 瀋陽과 遼陽 공략이 개시되기 2년 전부터 내부 공작을 획책하고 있었다. 『明神宗實錄』 卷 584, 萬曆 47(1619)년, 7월 戊子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사료6> 經略遼東楊鎬가 다음과 같이 題本을 올렸다. “開原은 主客兵馬로 원래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나, 兵馬를 다 징발하여 성 밖에서 방어하려던 것을 적의 奸細에게 발각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탓에 적이 빈 곳을 노리고 들어와 마침내 함락당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근래 奸細가 대단히 많고 遼陽城 안에도 李永芳, 修養性, 通事 董國雲의 姻戚이 있어 안팎으로 교섭하고 서신을 왕래하고 있습니다.”<sup>61)</sup>

이에 따르면, 修養性은 遼東城, 즉 遼陽城 내에 姻戚들을 이용하여 奸細 공작을 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修養性 자신이 明의 간첩으로 활동한 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탈옥에 성공할 정도였으므로 이런 식의 내부 공작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sup>62)</sup> <사료5-1>에 기재되어 있는 修養性에게 주어진 국가적 특권은, 이와 같은 활발한 내부 공작의 공적이 大清 정권에게 공인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sup>63)</sup>

61) 『明神宗實錄』 卷584, 萬曆 47(1619)년, 7월 戊子條: 經略遼東楊鎬題. 開原主客兵馬原自可守止, 因誤將兵馬盡撥城外設防, 爲賊奸細探知乘虛, 而入遂至失陷. 乃近日奸細甚多, 遼陽城中, 有李永芳·修養性通事董國雲之親, 內外交通使信往來.

62) 『明神宗實錄』 卷528, 萬曆 43(1615)년 정월 乙亥條: 頃, 撫臣提兵出塞, 遣羈僞修養性爲間諜.

63) 『通譜』 卷20, 「修養性」傳에 “從征遼東有功, 優授爲二等子”라 하여 修養性이 遼東, 즉 遼陽 공략에 공을 세워 二等子에 올랐다는 서술이 있는데, 아마도 <사료6>에서 유추할 수 있는 여러 내부 공작의 결과라 생각된다.

#### IV. 八旗制적 신분질서 하의 撫順 佟氏

누르하치의 대두를 맞이한 16세기말 만추리아의 격변 속에서 이번에는 大清의 국가 지배층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撫順 佟氏 일족은 이 국가체제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른 대우는 어떠했을까. 이는 清代의 撫順 佟氏가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이해하는 데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撫順 佟氏 일족이 淸의 官制 체계 속에서 어떠한 관직에 임명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淸代 국가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八旗制의 신분질서와도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淸의 爵制인 世職(hergen)에 초점을 맞춰 검토함으로써 八旗制 하 撫順 佟氏의 정치적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撫順 佟氏 일족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인 佟養正과 佟養性 일가의 구성원이 역임한 官職과 수여받은 世職을 정리한 것이 [표1]과 [표2]이다.<sup>64)</sup> ①에는 관직명을 기입하였고, ②에는 世職의 계승과정을 괄호 숫자를 덧붙여서 표시하였다. 世職이란 국가의식 상의 서열을 나타내는 爵位로 등급은 公을 필두로 하여 侯-伯-子-男-輕車都尉-騎都尉-雲騎尉-恩騎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유자에게는 稅役 상의 여러 경제적 특전이 부여되었다.<sup>65)</sup> 다만 이러한 爵位의 명칭은 3차례에 걸쳐 개칭이 이루어진 관계로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정착되는 1736(乾隆 元)년의 호칭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 1. 佟養正 일가 - [표1]

먼저 佟養正 일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자. 1세대 佟養正은 귀순 직후 鎮江守備에 발탁되어 당시 平安道 鐵山의 皮島(假島)에 주둔하고 있던 明將 毛文龍과 대치하다가 불의의 공격을 받아 戰歿하고 만다.<sup>66)</sup> 당시 佟養正은 遼陽 함락에 세운 공으로 三等輕車都尉의 世職을 수여받은 상태였는데, 長男 佟豐年도 함께 戰歿했기 때문에 이 世職은 次男인 佟盛年에게 승계되었다. 이 佟盛年이야말로 康熙帝의 生母인 孝康章皇后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로 滿文 사료에서는 주로 통 투라이(Tung

64) 각 표의 정리에는 『淸實錄』과 같은 연대기 자료와 함께 『初集』, 『續集』, 『通譜』와 같은 傳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만주어 인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初集』과 『通譜』의 滿文本에 의거하였다.

65) 世職制에 관해서는 杉山清彦,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75-87쪽 참조.

66) 『滿洲實錄』 卷7, 天命 6(1621)년 7월 20일조; 『初集』 卷143, 「佟養正」傳; 『續集』 卷135, 「佟養正」傳 참조.

Tulai(佟圖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후 佟盛年=투라이는 鑲黃旗漢軍 소속으로 兵部右參政, 正藍旗都統, 鑲白旗都統, 禮部侍郎 등을 역임하며 八旗官과 政府官을 두루 경험한다.<sup>67)</sup> 이는 그가 보유하는 世職의 승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631(天聰 5)년 大凌河 전투와 1642(崇德 7)년 塔山과 杏山 전투에서의 공적으로 연달아 二等輕車都尉와 一等輕車都尉로 승진한다. 入關 이후에도 활약은 계속되어서 漢地 정복전에서의 활약으로 1645(順治 2)년에 二等男, 1651(順治 8)년에는 三等子까지 승급하지만 최고위인 公에는 오르지 못한 채 1658(順治 15)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sup>68)</sup>

佟盛年=투라이는 사후에 世職 최고위인 公에 追封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이는 다름 아닌 외손자에 해당하는 康熙帝였다. 康熙帝는 1677(康熙 16)년에 孝康章皇后를 추존하면서 그 姻戚들에 대해서도 恩典 조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에 그 아버지인 佟盛年=투라이가 포함되어 一等公에 追封되었던 것이다.<sup>69)</sup> 부친 佟盛年=투라이의 世職은 장남인 佟國綱이 계승하지만, 차남인 佟國維 역시 딸이 康熙帝의 皇后(孝懿仁皇后)로 간택되면서 최고위 世職인 一等公의 자리에 오른다.<sup>70)</sup> 3세대 佟國綱과 佟國維는 康熙帝의 비호와 총애를 받아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장하여 康熙年間の 유력한 權臣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榮達의 배경에는 부친인 佟盛年=투라이의 공적이나 姻戚으로서 孝康章皇后·孝懿仁皇后的 존재도 중요했겠지만, 佟國綱과 佟國維 모두 유년 시절에 侍衛로서 任官하여 康熙帝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면서 皇帝와 맺은 사적인 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71)</sup> 康熙帝가 둘을 政府 부처의 고위관직에 임명하기 보다는

67) 당초 佟養正 일가의 旗屬은 鑲黃旗漢軍이었으나, 1688(康熙 27)년 佟國綱과 佟國維가 자신들 일가가 본래 州·縣·滿洲 계열이었다는 점을 들어 八旗滿洲로의 이동을 주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鑲黃旗滿洲에 속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P.Crossley, “The Tong in Two Worlds: Cultural Identities in Liaodong and Nurgan during the 13th-17th centuries”, 28-29쪽 참조.

68) 『初集』 卷143, 「佟圖賴傳」, 『續集』 卷135, 「佟圖賴傳」.

69) 『清聖祖實錄』 卷68, 康熙 16(1677)년 7월 庚子條: 原任都統精奇尼哈番佟圖賴, 慈和皇太后之父也. 勳舊世裔, 宣力累朝, 厚德鍾祥, 篤生聖母, 念劬勞之罔報, 宜恩禮之隆施, 特晉崇階, 以昭典則. 佟圖賴, 著加封為一等公. 妻覺羅氏, 封為公夫人, 給與誥命, 世襲罔替.

70) 『初集』 卷185, 「佟國維傳」, 『續集』, 卷138, 「佟國維傳」.

71) 실제로 侍衛는 皇帝의 단순한 경호기관을 넘어서서 황제권력의 求心性을 유지하는 측근집단이자 통치 인력의 양성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清代 侍衛制度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杉山清彦, 『大清帝國의 形成と八旗制』 제3장을 참조. 林慶俊 역시 雍正年間に 侍衛處의 장관인 領侍衛內大臣을 역임했던 창명(Changming/常明)의 사례를 통하여 侍衛의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林慶俊, 「清朝宮廷における内務府旗人の存在形態」, 『内陸アジア史研究』 33, 2018.

內大臣이나 領侍衛內大臣과 같은 侍衛處의 長官에 발탁하여 자신의 근처에 두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4세대에까지 이어진다. 佟國綱의 장남 오론타이(Olondai/鄂倫岱)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一等侍衛에서 자신의 官歷을 시작하여 이후 散秩大臣, 領侍衛內大臣과 같이 侍衛 部門의 최고위직을 역임하게 된다. 차남 파하이(Fahai/法海)의 경우 侍衛 계열은 아니지만 皇帝의 자문역으로서 文士들이 근무하는 南書房의 行走로 官歷을 시작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파하이는 皇帝의 家政 사무를 총괄하는 內務府總管에도 임용된 바 있어 文과 武라는 점은 달라도 오론타이와 파하이 모두 皇帝의 측근기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sup>72)</sup> 삼남인 쿠와다이(Kūwadai/夸岱)의 경우에도 正白旗漢軍都統이나 工部尚書와 같이 八旗官과 政府官을 역임하면서도 오론타이와 마찬가지로 散秩大臣과 領侍衛內大臣에 올라 侍衛를 지휘하였다.

그러면 佟國綱이 보유하고 있던 一等公의 世職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世職은 일단 장남인 오론타이에게 承襲되었는데, 雍正帝 즉위 후에 자신과 반목하던 允禩·允禵·允禴의 黨派로 몰려서 함께 숙청되고 만다.<sup>73)</sup> 이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世職은 동생인 쿠와다이에게 계승되었다.<sup>74)</sup> 이후 쿠와다이가 사망하자 世職은 그 자식으로 5세대에 속하는 남투(Namtu/納穆圖)가 승계하게 된다.<sup>75)</sup>

한편 佟國維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장남 롱코도(Longkodo/隆科多)는 康熙帝의 遺詔 전달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皇子 시절부터 雍正帝의 측근으로 활동해 왔던 ‘藩邸舊人’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sup>76)</sup> 그런 그 역시 一等侍衛에 발탁되어 官歷을 시작했으며, 이후 鑲白旗漢軍副都統, 步軍統領, 吏部尚書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康熙帝 사망 뒤의 정권교체기에는 總理事務王大臣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sup>77)</sup> 롱코도는 이후 雍正帝와 누이 孝懿仁皇后를 배경으로 하여 朝廷의 權臣으로 부상하였으니, 부친 佟國維에게서 물려받은 최고위 世職인 一等公은 이러한 그의 권세를 뒷받침하기

72) 『清史列傳』 卷13, 「法海」傳.

73) 『清世宗實錄』 卷43, 雍正 4(1726)년 4월 庚辰條; 『清世宗實錄』 卷64, 雍正 5(1727)년 12월 癸卯條 참조.

74) 『清世宗實錄』 卷29, 雍正 3(1725)년 2월 乙未條: 一等公鄂倫岱, 緣罪革退. 以其弟領侍衛內大臣夸岱, 襲爵.

75) 『清世宗實錄』 卷86, 雍正 7(1729)년 9월 乙未條: 以故一等公夸岱子納穆圖, 襲爵.

76) 鈴木眞, 「雍正帝と藩邸舊人」, 『社会文化史學』 42, 2001.

77) 總理事務王大臣에 관해서는 송미령, 「清 중기 總理事務王大臣 체제와 정국운영」, 『동양사학연구』 124, 2013을 참조.

에 충분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1727(雍正 5)년에 16개의 罪案으로 탄핵을 받아 실각함에 따라 짧은 권세도 막을 내리고 만다.<sup>78)</sup> 하지만 一等公의 世職은 동생인 킵푸(Gingfu/慶復)에게 승계되어 가계의 지위 자체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었다.<sup>79)</sup>

## 2. 修養性 일가 - [표2]

다음은 修養性 일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修養性에 관해서는 世職의 辭令狀인 勅書(ejehé)가 『滿文原檔』에 다음과 같이 謄寫되어 있다.

<사료7> 한이 말하기를 修養性, 너는 원래 撫順城의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사이가 좋다고 하여 明의 皇帝가 붙잡아 遼東城의 감옥에 감금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나를] 따르기 위하여 도주해 온 功으로 자식을 주어 사위로 삼고 副將의 世職을 주었다. 遼東을 얻은 뒤에는 總兵官의 世職을 주고 治下의 漢人 部衆(nikan gurun)의 사무를 처리하라고 일을 맡겼다. 실수하고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해당하는 贖을 취한다. 이 世職을 자손 대대로 革職하지 않는다.<sup>80)</sup>

修養性이 商人으로서 撫順 佟氏의 家業인 상업에 종사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修養性은 귀순한 공적을 인정받아 누르하치의 어푸(efu), 즉 駙馬가 되는 동시에 副將에 임명되었다. 여기서 副將은 관직이 아니라 世職의 副將을 가리키는 데, 爵位의 등급으로는 男에 해당한다. 『初集』의 「修養性」傳인 <사료5-1>에 따르면, 修養性은 “二等副將의 世職에 제수”되었다고 하므로 이로부터 二等男의 世職을 수여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1)</sup> 이후 遼東, 즉 遼陽을 공략할 때에 공적을 세워 總兵官, 즉 二等子로 승급되었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明으로부터 투항한 李永芳, 石廷柱, 鮑承先 등과 함께 漢人 部衆(nikan gurun)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sup>82)</sup> 修養性은 漢人으로 구성된 포병부대를 조직하여 大凌河城 공방전을 비

78) 룡코도의 16가지 罪案은 『清世宗實錄』 卷62, 雍正 5(1727)년 10월 丁亥條에 열거되어 있다.

79) 『清世宗實錄』 卷58, 雍正 5(1727)년 6월 丁未條: 一等公隆科多, 緣罪革爵, 以其弟慶復襲替.

80) 『滿文原檔』, 「藏字檔」(제5책, 246쪽: 『滿文老檔』 太宗 1, 324쪽). 다만 이 사료는 『滿文原檔』은 물론이고 이를 재정리한 『滿文老檔』에도 단지 “天聰 시기에 漢人大臣들과 官員에게 준 勅書”라 표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성 시기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목으로 보면 天聰年間に 발급된 勅書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滿文老檔』의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참조하였으나, 문맥에 따라 일부는 줄여서 의거하였다.

81) 다만 『通譜』 卷20, 「修養性」傳에는 三等男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初集』의 정보를 우선하기로 한다.

82) 『續集』 卷206, 「修養性」傳: 六年, 從克遼陽, 晉二等子. ……時, 漢軍未分旗, 勅養性總理官民, 俱受節

못한 對明 전쟁에서 활약하게 된다.<sup>83)</sup>

修養性 사후에 그가 보유하고 있던 二等子의 世職은 장남인 진한(Jinhan/晋漢)이 물려받았다가 그의 요절로 인하여 차남인 修壽年(Usi/六十)에게로 돌아가 2세대로 원활하게 승계된다. 修壽年는 滿洲語 성명인 우시로 칭해지면서 修養性 일가가 소속되어 있던 正藍旗漢軍의 副都統과 都統을 역임하는 등 八旗漢軍의 名門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3세대에 속하는 修國瑤가 아버지 修壽年=우시의 三等伯 世職을 承襲하고 자신 역시 아버지를 이어서 正藍旗漢軍의 副都統에 임용됨으로써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84)</sup> 그러나 뒤를 이은 4세대 하이푸(Haifu/海福)나 5세대 치푸(Cifu/齊福) 대에 들어서는 사료 상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두드러진 활약상을 드러내지 못한 채 단지 집안 대대로 世職을 이어받는 데에 만족했던 듯하다.<sup>85)</sup>

이상 修養正과 修養性 일가를 중심으로 八旗制 하 撫順 佟氏의 존재양태를 살펴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淸에게서 수여받은 世職을 재출발을 위한 존립기반으로 하면서 가계별로 분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世職의 承襲과 승급·강등과정을 살펴보면 각기 서로 다른 선택지를 통하여 清代를 통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귀순 초기에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修養性 쪽이었다. 滿洲와 明朝 간의 개전 상황 속에서 修養正이 귀순 직후에 사망한 것과 달리 修養性은 在地 인맥과 정보공작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본인 생존 시에 二等子의 자리에 올랐다. 이는 八旗官 중 旗의 최고지휘관인 都統에 상당하는 지위였다. 修養正의 世職이 八旗官에서 旗의 중간간부격인 參領에 상당하는 三等輕車都尉에 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의 지위 격차는 뚜렷하다. 더군다나 비록 庶子 소생이기는 해도 修養性의 경우 누르하치 일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적어도 入關前까지만 해도 修養性 가계는 修養正 가계보다 월등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세대에 들어오면서 양가의 지위는 서서히 역전되기 시작한다. 바로 修養

制. 額駙李永芳, 及明副將石廷柱, 鮑承先等, 先後來降者, 與佟氏族人, 皆爲所屬.

83) 楠木賢道, 『淸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9, 153-154쪽.

84) 『初集』卷190, 「修國瑤」傳.

85) 『通譜』卷20, 「修養性」傳.

정의 차남 修盛年=투라이가 入關 후 淸의 漢地 정복전에서 혁혁한 공적을 세우며 승급을 거듭한 결과 본인 일대에 三等子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修養性의 二等子를 承襲한 修壽年=우시도 군사 방면에서의 꾸준한 활약을 통해 三等伯으로 진급하면서 여전히 고위 旗人 가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修養正 일가는 修盛年=투라이 본인의 개인적 榮達에 더하여 姻戚인 康熙帝가 즉위함에 따라 修養性 일가는 물론이고 旗人 사회 전체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權門으로 성장하게 된다. 3세대의 修國綱과 修國維 두 형제가 나란히 旗人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 世職인 一等公을 수여받은 것은 이러한 위상을 상징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修國綱·修國維 형제의 榮達에는 皇室의 姻戚으로서의 가문적 배경뿐만 아니라 皇帝 직속의 親衛隊인 侍衛로 재임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험도 주요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官歷은 修國綱과 修國維 본인들은 물론이고 4세대에 속하는 오론다이, 쿠와다이, 룡코도, 강푸 모두에게 발견될뿐더러 주로 文士로서 활약한 파하이의 경우에도 皇帝의 家政機關인 內務府의 수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修養正 이후 일가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컨대 修國綱·修國維 형제는 한편에서는 八旗漢軍의 지휘관이나 정부 부처의 요직을 역임하는 동시에 侍衛나 內務府와 같은 측근기구의 수장을 맡으면서 朝廷 내의 영향력을 착실하게 확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14세기 후반 몽골의 元을 축출하고 漢地를 장악한 明朝는 만추리아 일대에 거주하던 주선인을 회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다수의 주선 씨족집단이 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격변하는 시대의 추세 속에서 주선의 유력 씨족 중 하나였던 통기야 씨 역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支派 별로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始祖 바후 톡신의 차남인 다르간 투머투 일파는 명의 회유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遼東都司 관할 하에 있던 지역으로의 이주를 단행하였으니, 이로부터 본 논문에서 다룬 撫順 佟氏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다르간 투머투는 開原과 撫順 일대를 거점으로 하면서 주선과의 접경지대를 왕래하는 상거래를 통하여 일족의 생존을 도모하였다. 한편 明朝에서는 靖難의 役

에서 승리하여 皇位에 등극한 永樂帝가 遼東에 거주하던 주선인 출신 귀화인에 대한 招撫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자 다르간 투머투는 여기에 응하여 三萬衛의 衛所軍官으로서 出仕하는 동시에 明이 만추리아 동북부에 전초기지로서 설치한 누르긴 都司 경영에도 참여하였다. 이리하여 다르간 투머투를 증시조로 하는 撫順 佟氏는 明의 주선인 출신 衛所軍官으로서 재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撫順 佟氏의 생존 수단은 衛所軍官으로의 出仕에 한정되지 않았다. 三萬衛와 누르긴 都司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이주 이래 생업을 위한 방편이었던 상업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撫順 佟氏는 두 가지 선택지를 유연하게 병용하는 과정에서 漢人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漢化된 주선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처럼 華와 夷 두 세계를 서로 맺어주는 경계인적 존재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이런 점에서 撫順 佟氏의 양대 家業이라 할 수 있는 衛所軍官으로의 出仕와 상업활동의 종사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세기 말 撫順 佟氏는 明清交替라는 새로운 격동기를 맞이함에 따라 다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撫順 佟氏 일족은 사촌지간인 佟養正과 佟養性的 지도하에 新興 누르하치 세력으로서의 귀순을 단행하였다. 두 사람은 撫順 佟氏 일족을 대표하는 중요 인물이었는데, 滿洲로의 투신과정에는 종래 商人으로서 遼東 馬市를 왕래하며 누르하치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던 佟養性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상업활동에서 축적한 지역사회의 영향력과 자신의 첩보력·공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누르하치의 遼東 공략 과정에 지대한 공적을 세움으로써 淸의 지배층인 八旗旗人に 편입되는 데 성공하였다.

귀순 이후 佟養正과 佟養性 일가는 각기 鑲黃旗漢軍과 正藍旗漢軍에 분속되는 동시에 淸에게서 수여받은 官職과 世職을 존립기반으로 하여 가계별로 분기해 간다. 大清은 두 가계에 대하여 ‘漢化’ 만주인으로서 漢人 문화에 친화적이라는 특징을 평가하여 주로 漢人 통치와 漢軍 관할의 임무를 맡게 하거나 侍衛·內務府와 같은 皇帝 직속 측근기구에 발탁함으로써 정권 내부로의 포섭을 획책하였다. 佟養正과 佟養性 두 가계의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漢地 정복전에서 쌓아 올린 공적과 皇帝의 측근이라는 위치를 통하여 旗人 사회에서의 榮達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婚姻을 통하여 大清皇室의 姻戚으로 자리를 잡거나 ‘滿洲’라는 계보의식을 강조하여 八旗滿洲로의 移旗를 추진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sup>86)</sup>

이처럼 明末清初라는 격변 속에서 撫順 佟氏 일족이 취한 선택은 개인적 차원의 상승 욕구와 짝을 이루는 家系的 차원에서의 정치·사회적 상승 전략이었다. 관점을 바꾸어 大清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처럼 明과 淸 어느 쪽에도 가담할 수 있는 복수의 선택지를 지닌 집단을 어떻게 포섭할 지는 국가의 존속과 통합에 결부된 중요한 문제였다. 大清 정권 하 撫順 佟氏 일족의 성공적인 정착은, 가계의 상승 전략과 국가적 통합이라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합치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

86) 이와 함께 修養正과 修養性의 가계 성원 모두 귀순 직후에는 만주어 성명과 한어 성명을 병용하고 있었으나, 4세대에 접어들면 만주어 성명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저해지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표1>과 <표2> 참조).

<표1> 佟養正 일족의 官職과 世職

I	II	III	IV	V
佟養正 (= 佟養眞) ①鎮江守備 ②三等輕車都尉(1)	佟豐年  佟盛年(Tulai) ①兵部右參政, ·正藍旗都統 ·定南將軍, ②三等輕車都尉(2) →二等輕車都尉 →一等輕車都尉 →加雲騎尉 →二等男 →三等子 →一等公	佟國綱 ①佐領 ·一等侍衛 ·正藍旗漢軍都統 ·內大臣 ·教習鳥槍兵丁總管 ②三等子(3) →一等公	오론다이(Olondai/鄂倫岱) ①一等侍衛 ·廣州副都統 ·鑲黃旗漢軍都統 ·領侍衛內大臣 ·議政大臣 ·散秩大臣 ·正藍旗漢軍都統 ·火器營統領 ②一等公(4) →緣罪革退  파하이(Fahai/法海) ①南書房行走 ·翰林院侍讀學士 ·廣東巡撫 ·浙江巡撫 ·內務府總管  쿠와다이(Kūwadai/夸岱) ①散秩大臣 ·領侍衛內大臣 ·正白旗漢軍都統 ·內大臣 ·工部尚書 ②騎都尉又一雲騎尉[1] →一等公(5)  룽코도(Longkodo/隆科多) ①一等侍衛 ·鑲白旗漢軍副都統 ·步軍統領 ·總理事務王大臣 ②一等公<2> →緣罪革退  깡푸(Gingfu/慶復) ①散秩大臣 ·正白旗漢軍副都統 ·領侍衛內大臣 ·議政大臣 ·吏部尚書 ·雲南總督 ②一等公<3> →緣罪革退	부희(Buhi/補熙) ①廕生 ·理藩院員外郎 ·天津總兵官 ·鑲白旗漢軍副都統 ·江南提督 ②騎都尉又一雲騎尉[2]  남투(Namtu/納穆圖) ①正藍旗漢軍都統 ·鑲黃旗漢軍都統 ·正黃旗漢軍都統 ②一等公(6)

주1) ①은 역임한 관직, ②는 世職을 가리키며, ②의 화살표는 世職의 변동을 의미한다.  
주2) 世職 옆에 부기한 (1)·<1>·[1]은 각각 世職의 계승순서를 가리킨다.

<표2> 佟養性 일족의 官職과 世職

I	II	III	IV	V
佟養性 ①撫順商人 Si Uli Efu ②三等男 →二等子(1)	진한(Jinhan/晋漢) ②二等子(2)			
	佟壽年(Usi/六十) ①正藍旗漢軍副都統 正藍旗漢軍都統 ②二等子 →三等伯(3)	佟國瑤 ①正藍旗漢軍副都統 鄖陽提督 福建將軍佐領 ②三等伯(4)	하이푸(Haifu/海福) ②三等伯(5)	치푸(Cifu/濟復) ②二等子(6)

주1) ①은 역임한 관직, ②는 世職을 가리킨다.

주2) 世職 옆에 부기한 (1)·<1>·[1]은 각각 世職의 계승순서를 가리킨다.

## 참고문헌

### 1. 사료

- 『明太宗實錄』 = 國史編纂委員會DB 수록본  
 『明宣宗實錄』 = 國史編纂委員會DB 수록본  
 『明憲宗實錄』 = 國史編纂委員會DB 수록본  
 『明神宗實錄』 = 國史編纂委員會DB 수록본  
 『三萬衛選簿』 = 中國第一歷史檔案館·遼寧省檔案館 編, 『中國明朝檔案總匯』(全101冊),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55冊 수록본  
 『奴兒干永寧寺碑記』 = 內藤湖南, 『內藤湖南全集』 7, 東京: 筑摩書房, 1970 수록본  
 『滿文原檔』 = 馮明珠 主編, 『滿文原檔』(全10冊),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05  
 『滿文老檔』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역, 『만문노당 역주 太宗』(전4책), 소명출판, 2017  
 『滿洲實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역,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2014  
 『淸聖祖實錄』 = 國史編纂委員會DB 수록본  
 『淸世宗實錄』 = 國史編纂委員會DB 수록본  
 『通譜』 = 『八旗滿洲氏族通譜』 漢文本: 影印本, 瀋陽: 遼瀋書社, 1989 / 滿文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소장본  
 『初集』 = 『八旗通志初集』 漢文本: 點交本, 全8冊,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 滿文本: 天理圖書館 소장본  
 『續集』 = 『欽定八旗通志』 點交本, 全12冊,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1  
 『淸史列傳』 = 點交本, 全20冊, 北京: 中華書局, 1986  
 『八旗文經』 = 『八旗文經』 影印本, 瀋陽: 遼海出版社, 2009  
 『佟氏宗譜』(民國 7년 續修)

### 2. 한국어문헌

-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여진 - 만주족과 조선의 관계」, 『만주연구』 15  
 김호동, 2006,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서인범, 2005,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淸史研究』 23  
 송미령, 2013, 「淸 중기 總理事務王大臣 체제와 정국운영」, 『동양사학연구』 124  
 이블린 S. 로스키, 구범진 옮김, 2010,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까치  
 임경준, 2020, 「淸朝의 北京遷都와 盛京地域」, 『동국사학』 68

### 3. 중국어문헌

- 佟明寬, 1999, ·李德進 編, 『滿族佟氏史略』, 撫順: 撫順市新聞出版局  
于志嘉, 1987, 『明代軍戶世襲制度』, 臺北: 學生書局  
王政堯, 1989, 「佟養性和“佟半朝”」, 『人物』 1989-2  
王革生, 1985, 「清朝開國功臣佟養性」, 『北方論叢』 1985-6  
楊暘 編,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 中州: 中州書畫社  
楊暘, 1988, 『明代遼東都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楊海英, 2019, 「明清之際遼東佟氏先世考辨」, 『民族研究』 2019-6  
程彩萍, 2013, 「明代帶俸武官初探」, 『江蘇社會科學』 2013-2  
侯壽昌, 1982, 「康熙母系考」, 『歷史檔案』 1982-4  
\_\_\_\_\_, 1986, 「淺論佟養性」, 『歷史檔案』 1986-2

### 4. 일본어문헌

- 江嶋壽雄, 1999, 『明代清初の女直史研究』, 福岡: 中國書店  
楠木賢道, 2009,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內藤湖南, 1970, 「清朝姓氏考」, ·『內藤湖南全集』 7, 東京: 筑摩書房 (原載: 『藝文』 3-3-4, 1912)  
\_\_\_\_\_, 1970, 「奴兒干永寧寺二碑補考」, 『內藤湖南全集』 7, 東京: 筑摩書房 (原載: 『讀史叢錄』, 1929)  
鈴木·眞, 2001, 「雍正帝と藩邸舊人」, 『社会文化史學』 42  
杉山清彦, 2015, 「中央ユーラシア國家としての大清帝國」,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_\_\_\_\_, 2015,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三田村泰助, 1965, 「清朝の開國傳説とその世系」, 『清朝前史の研究』, 京都: 同朋社出版 (原載: 『立命館大學五十周年記念論文集』, 1951)  
\_\_\_\_\_, 1965, 「明末清初の滿洲氏族とその源流」, 『清朝前史の研究』, 京都: 同朋社出版 (原載: 『東洋史研究』 19-2, 1960)  
綿貫哲郎, 2002, 「清初の舊漢人と八旗漢軍」, 『史叢』 67  
神田信夫, 2005, 「滿洲(manju)国号考」,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原載: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72)  
\_\_\_\_\_, 1981, 「滿洲における國家の成立」, 護雅夫·神田信夫 編, 『北アジア(新版)』(世界各國史), 東京: 山川出版社  
\_\_\_\_\_, 2005, 「清初の漢軍武將石廷柱について」,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原載: 『駿台史學』 66, 1986)  
細谷良夫, 1994, 「烏真超哈(八旗漢軍)の固山(旗)」, 『松村潤先生古稀紀念清代史論集』, 東京: 汲古書院  
岸本美緒, 1998, 「東アジア·東南アジア傳統社會の形成」, 『岩波講座世界歴史 13』, 岩波書店

- \_\_\_\_\_, 2012, 「十八世紀の中國と世界」, 『風俗と時代觀: 明清史論集1』, 東京: 研文出版 (原載: 『七隅史學』 2, 2001)
- 林·慶俊, 2018, 「清朝宮廷における內務府旗人の存在形態」, 『內陸アジア史研究』 33
- 長田夏樹, 2001, 「奴兒干永寧寺碑蒙古女眞文釋二稿」, 『長田夏樹論述集』 下,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 増井寛也, 1993, 「滿族入關前のムクンについて: 『八旗滿洲氏族通譜』を中心に」, 『立命館文學』 528
- 川越泰博, 1978, 「三萬衛選簿の研究」, 『中國典籍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原載: 『史苑』 38-1-2, 1977)
- \_\_\_\_\_, 2001, 『明代中國の軍制と政治』, 東京: 國書刊行會
- 浦·廉一, 1931, 「漢軍(烏眞超哈)に就いて」, 『桑原隲藏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京都: 弘文堂
- 荷見守義, 2014, 『明代遼東と朝鮮』, 東京: 汲古書院
- 河内良弘, 1989, 「契丹·女眞」, 三上次男·神田信夫 編, 『東北アジアの民族と歴史』(民族の世界史 3), 東京: 山川出版社
- 和田·清, 1955, 「明初の滿洲經略」上·下, 『東亞史研究(滿洲篇)』, 東京: 東洋文庫 (原載: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4·15, 1934)

## 5. 영어문헌

- Crossley, Pamela K, 1983, “The Tong in Two Worlds: Cultural Identities in Liaodong and Nurgan during the 13th-17th centuries”, *Ch'ing-shih wen-t'i* 4-9
- Ho, Ping Ti, 1967, “The Significance of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6-2
- Rawski, Evelyn S, 1996,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 Szonyi, Michael, 2017, *The Art of Being Governed: Everyday Politics in Late Imperial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ary, Giovanni, 2000, *A Dictionary of Manchu Names: A Name Index to the Manchu Version of the “Complete Genealogies of the Manchu Clans and Families of the Eight Banners”*,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투고일 : 2021년 03월 21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4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4월 19일

■ Abstract ■

## The Tunggiya Clan During the Ming and Qing Periods

Lim Gyungjune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unggiya, a powerful clan amongst the Manchus, and investigates its activities from Ming to early Qing. The Tunggiya's roots trace from Bahu Teksin of the 14th century. From Bahu Teksin came the Fushun's Tong families of the Dargan Tumetu lineage. The Tunggiya surrendered to the Ming during the transitional unrest betwee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and eventually became commanders of the Weisuo (a military arm of the Ming Dynasty). The Dargan Tumetu thus resided primarily in Fushun, inheriting similar military command posts during the Ming Dynasty. Yet, while both clans served military purposes, the Dargan Tumetu accumulated fortunes through their commercial activities on the frontier.

With the rise of the Qing Dynasty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e Tunggiya faced a new challenge. Tong Yangxing and Tong Yangzheng, clan leaders, saw surrender as the only means of appeasing this new emerging force. They made full use of the Liaodong to support the Qing Dynasty, eventually rising as leaders of the Eight Banners. Their families birthed a government and public lineage of officials during the Qing. Their cooperation with the Qing and appreciation of Chinese culture and led to their dominion over the surrendered Han Chinese. As a result, the Tunggiya contributed militarily to the conquests of the Qing Dynasty, exploiting ties with the emperor in his inner circle both in as Imperial Guards and in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Tunggiya's savvy political maneuvering thus served as a tool of empowering an entire lineage.

Key words: Tunggiya clan, Fushun's Tong Families, Military Commanders of Weisuo, Liaodong, Eight Banners, Bannermen.